



ESCO, 신시장 개척과 새로운 금융 기법으로 활로를 찾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구축을 위한 ESCO CEO 포럼

최근 경제 부진과 금융 불안 등 경제적 상황이 ESCO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ESCO 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ESCO CEO 포럼이 개최되었다. 지난 6월 26일 서울문화교육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을 자세히 소개한다. 글 편집팀 사진 Studio F22



ESCO 해외 진출 모색과 금융 기법

이범용 ESCO 협회 회장의 인사말로 포럼이 시작되었다. 이범용 회장은 “급변하는 국제적 동향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ESCO 투자사업의 금융기법에 대한 정보를 얻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ESCO 산업의 경향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변화에 대비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벌써 2009년 상반기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때, ESCO 협회는 하반기에도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의 장을 마련하여 ESCO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ESCO CEO 포럼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정규재 박사의 특별 강연을 통해 ‘ESCO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되었고, 산은캐피탈 신형철 팀장이 ‘ESCO사업의 금융기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중국 진출,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투자금융기관 참여해야

먼저 에너지경제연구원 정규재 박사가 특별 강연을 통해서 ESCO 중국 진출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그가 작성한 논문이 게재된 ‘Report’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가장 중요한 연료는 석탄이다. 따라서 청정 석탄 개발이나 CO₂ 감소가 중요한 에너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정부 주도 하에 이러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앞선 기술을 도입할 계획을 밝히고 관련 정책도 마련했다. 이러한 현황은 에너지 절약, CO₂ 절감 등 모든 과제를 동시에,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때문에 ESCO 시장 뿐만 아니라 CDM 시장도 중국에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8년 11월 에너지관리공단과 수출입은행 사이에 해외 CDM 사업 지원을 체결함으로써 해외 ESCO 사업의 재원

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상황도 마련되었다.

먼저 중국 에너지 전략의 기본 내용부터 알아보자. 에너지 정책의 시초는 2006년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새로운 에너지 안보 개념에 따라 성립되었다. 주요 골자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 공급을 다원화하고 환경보호를 견지하며 안정적이며 경제적이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자원 확보를 위해서 최근 스위스 석유회사와 M&A를 맺은 중국은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적 에너지 절약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중국은 ESCO 기술이 진출하기를 개방하는 형국이다. 앞선 ESCO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기업으로써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규재 박사는 우리나라의 ESCO 업체가 중국에 진출할 경우, 다음의 몇 가지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외국의 우수 ESCO 기업과 경쟁하기 위하여 각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및 자본의 우위를 상호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중국 ESCO 시장에 진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 내에서의 자본조달을 위해서는 중국의 금융시장 시스템, 특히 ESCO 사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사전 정보수집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큰 국가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함께 진출을 희망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하겠다. 성급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현급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 및 외국기업 지원정책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아무튼 이를 계기로 국내 ESCO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해 본다.

PF, 사업 확대를 위한 자원 확보책 될 것

“지금은 ESCO 사업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자금 투자 방법을 모색하고 수익성을 금융시장에 알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ESCO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산은캐피탈의 신형철 팀장은 강연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0년이 넘게 ESCO 사업의 성장을 금융인의 시각으로 지켜봐 온 전문가로서 ESCO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분야로 정의했다. 하지만 정책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ESCO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현재 금융시장통합법으로 국내 금융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특정 분야나 목적으로 한 Project Finance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일반인들도 P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이유로 ESCO도 PF를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SCO에 PF가 적절한 금융기법인 이유는 무엇일까. 신형철 팀장은 먼저 PF의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회사 재무제표가 반영되지 않아 규모가 작은 ESCO 기업도 사업 내용에 따라 큰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미래 현금 흐름 예상이 가능하고 생산물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이 입증된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민간 투자자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단, 사업참여자간의 수익 분배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 절차 및 계약이 복잡한 단점은 있다. 신형철 팀장 역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업 리스크가 SPC에 전담되고 사업주에게는 최소화한다는 점, 프로젝트의 사업 가치만 높으면 부채조달 능력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PF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금융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치적 위험 등 보험 커버에 따른 보험료가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성공적인 PF의 도입을 위해서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고 위험 Hedge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신뢰성을 제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ESCO CEO에게는 경쟁력 있는 기술력 개발을 홍보할 수 있는 문서화 능력이 펀드 참여자를 증가시키고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SCO는 에너지 및 환경에 대한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해외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금융에서 탈피한 자금 조달 방법이 자리잡아야 할 때다. PF가 그 해답이 되기 위해서는 ESCO 사업자의 관심으로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